

제426주년 충장공 권율 도원수 이치대첩기념제 봉행

문정우 금산군수, 이치대첩지 국가사적지로 승격하는 학술용역사업 추진

제426주년 충장공 권율도원수 이치대첩기념제가 8월 26일 오전 10시 충남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191번지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봉행되었다. 이치대첩기념제는 오전 10시 김성일 이치대첩기념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했다. 문정우 금산군수, 김종학 금산군의회의장, 이희천 교육지원청장, 문달식 1970년대 6대대장, 송인성 금산경찰서장, 최수철 소방서장, 김진섭 진산면장, 나희귀 금산향교전교, 박경하 진산향교 전교, 안동권씨대중회 권건중 사무총장, 권영범 충장공학회 회장, 안동권씨대전총회 권용기 회장, 권경관 금산지역총회장, 권박원 이사장, 권호준 전 이사장 순으로 소개했다. 이외에도 편집국장 권행안, 총무부장 권영규, 업무부장 권태훈(이상 대중회), 권동원 사무이사, 권정순 총무(이상 참의공파), 권근원 회장(탄원공 종중) 등 8명, 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 권순용, 서울청장년회 기획실장 권기성, 32사단 군악대,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이치대첩지가 현재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국가사적지로 승격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하면서 10월경 이치대첩 관련 학술용역 사업 등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건중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올해로 제426주년을 맞은 이치대첩은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이라는 절체절명의 국가 존망의 위기 시에 권율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이 땅을 지켜야 한다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풍전동화와 같은 국난을 처절하게 극복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말하며 이치대첩기념제를 준비한 금산군청과 진산면 그리고 참석한 주민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충장공 권율도원수는 이

치대첩뿐만 아니라 행주대첩을 승전으로 이끌어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으로 "바다는 이순신장군, 육지는 권율도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장군은 정부에서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충장공을 기리는 기념행사는 유림이나 고양시에서만 주관하는 지역행사에 국한되어 이순신 장군은 정부예산 1억이 배정되어 있고, 권율도원수는 지자체 예산 1400만원에 그쳐 그 행사의 격차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해서 충장공 권율도원수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호국의 열을 제대로 선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동권씨 대중회에서 충장공의 애국애족의 정신과 호국영령들의 무훈(武功)을 전 국민적 차원에서 기리고

자 행주대첩 기념행사를 국가기념행사로 격상시키는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송고한 뜻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해 대대적인 호응과 함께 큰 박수를 받았다. 기념행사는 퓨전 음악 공연, 32사단 군악대 등이 준비되어 있었으나 우천관계로 오! 금산성 뮤지컬만 공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치대첩은 권율장군이 휘하 관군과 의병들에게 "오늘의 싸움은 진격만 있을 뿐 후퇴는 없다. 죽음만 있고 삶은 없다"고 외치면서 이치고개를 통해 호남으로 진출하려는 왜적 2만여명을 통쾌하게 무찌른 임진왜란 최초로 육전에서 승리를 거둔 전투이다.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100만 서명운동 전개



대중회에서는 제426주년 충장공 권율도원수의 이치대첩기념제를 맞이하여 기념행사가 개최되는 금산군 진산면 충장사 현장에서 금산군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행주대첩기념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일부 시민들은 때늦은 감이 있더라도 국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권율장군에게 권율장군의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100만 서명운동은 지금까지 안동권문의 족친끼리 서명하던 행사에서 전 국민적인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행사였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권호준 전 참의공 중증 이사장은 직접 종이에 서명을 받는것도 좋지만 온라인에서도 100만 서명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염원을 담아 앞으로는 전 국민적인 차원의 서명운동으로 확산되어 나가기 기대해본다.

9월 회비 및 헌성금 납부 내역

<상임부회장 회비> 권영성 : 2,000,000원
<부회장 회비> 권오한(제주) : 1,000,000원 권기갑(이천) : 1,000,000원 권정택(고양) : 1,000,000원 권기홍(문경) : 1,000,000원 권병근(합천) : 500,000원
<총무위원 회비> 권현태(영주) : 200,000원 권현중(안동) : 200,000원
<이사 회비> 권기현(고양) : 300,000원 권영문(안동) : 300,000원 권혁환(울산) : 300,000원 권영규(서울) : 300,000원
<헌성금> 권혁홍(부회장) : 1,000,000원(안동 시조묘소 참배) 총계 : 9,100,000원

안동권씨대중회

권오봉 여수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도약

권오봉 여수시장은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의 북상으로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부득이 취임식을 취소하게 되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며 취임사로 대신했다.

권오봉 시장은 이번 시장선거 결과를 경향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선택한 이유는 깨끗한 행정과 전문성으로 여수발전을 앞당기려는 준엄한 명령임을 잘 알고



권오봉 시장은 '시민이 참 주인 되는 여수', '시민중심 시대'에 시

정의 핵심가치를 시민 모두가 행복 한 '균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정, 시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경제, 사람중심의 나누는 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을 만들어서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시장의 비전을 제시했다. 앞으로 3려 통합의 정신에 따라

균형 발전을 이루고 4년 동안 변화와 혁신으로 '국내 3대 휴양관광도시 진입', '시민 1인당 소득 3만 달러 달성', '정주인구 30만 기반 조성'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권오봉 시장은 소통하는 시장으로 투명한 행정을 펼치며 무엇보다 항상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조화와 균형으로 다가가겠다고 역설했다.

경 안동권씨 제주특별자치도 종친회 창립 축

안동권씨 100만 족친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종친회가 창립되었습니다.

100만 족친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족친 여러분 가정마다 화목하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회장단 명단

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재무	부회장/총무	이사/부총무
권오한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국제위원장	권인창 회장 오대총합상사, JEP	권영복 ㈜내소날건업	권오민 ㈜내소날건업	권호근 죽성제재소대표	권점순 정관장대표	권서호 ㈜제주아침대표	권창희 (사)한국스마트시티회장	권희정 학산농산대표	권태성 인텔전기통신(주)대표	권대성 오성농장대표	권영희 전 오페라단장	권진환 (유)티비에스개발대표

法古創新(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자)

연락처 : 권오한 회장(010-7171-1747, 064-745-1009)

2018. 9. 1.

안동권씨 제주특별자치도 종친회 회장 권오한

